2. 현대그룹 환경인 모임 (제 1회) 소개

1. 일시 : 1997. 4. 25 (금)

2. 장소 : 현대전자 이천공장 환경교육장

3. 주관 : 현대환경연구원
   주최 : 현대전자

4. 목적
   - 그룹내 환경관련 협력체계 구축
   - 그룹내 환경관리 및 환경기술 관련 정보와 경험의 공유
   - 국내외 환경관계법규 및 환경기준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 협의
   - 폐기물 위탁처리 등 외부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공동대응
   - 그룹내 환경관계자 사이의 친목 도모

5. 참여회사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산업개발, 인천제철,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고려산업개발, 대한알루미늄, 현대엘리베이터, 캐피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알루미늄, 금강개발,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 (총18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경영 및 환경관리부서, 환경관련 연구부서, 환경관련 사업부서 등의 부서장 (팀장)

6. 프로그램
   - 현대전자 환경관리 현황 소개
   - 폐수의 불소 이온에 의한 장애와 대책 (현대전자 이종영 과장)
   - 질소제거공정의 설계시공 및 시운전 (보명플랜트 강준식 부장)
   - OECD 및 환경협약가입과 현대그룹의 단계적 대응 전략 (현대환경연구원 우석훈 연구위원)
   - 현대엘리베이터 폐수 무방류시스템 견학
   - 현대전자 환경시설 견학
   - 각 사의 환경소식, 정보발표 및 질의토론

7. 참가인원 : 45명 (현대환경연구원 포함)

현대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5일 현대전자 이천공장에서 현대그룹사의 환경인들을 대상으로 환경인 모임 (가칭)을 가졌다. 국내외적으로 높아지는 환경과련 의식 및 과

심에 즈음하여 분기별로 환경관리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유 및 인적 네크워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숙원 사업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환경관련 세미나 및 각사별 발표와 질의토의라는 내용적 형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금번 환경인 모임에서 환경관리인들은 열의를 가지고 토론에 임했으며, 환경 Emergency system이나 환경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의 연계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 지속발전형 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현대환경연구원은 환경인들에게 계속해서 관련 정보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담당자들 자신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할 것이다.

현재 환경이 한국 경제체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아지는 중이며, 이에 조응하여 환경관리인들의 역할도 막급해지고 있다. ISO 14000의 EMS 인증 취득 및 환경경영 체계의 정착, 환경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투명화, 환경기술의 경성적·연성적 혁신, 그리고 환경의 서비스화라는 기치 아래 환경부문 비용의 투자화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높은 환경관리 체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여러 수준에서 같이 논의되고 실천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금번 모임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룹 폐기물 관리에 관한 문제와 각 계열사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신속한 지원에 관한 문제는 또한 시의적절한 지적이었으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룹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계속적인 환경인들의 모임을 주최하며 그룹사 환경인들에게 모임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모임 결과 및 의견을 종합하여 모임을 통한 서로의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